

유해위험기계구

빈틈없는안전



1. 개요 인쇄용지, 생활용지, 사무용지 등 종이를 전문 생산하는 평택공장은 근로자 370명과 협력사 포함 총 43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종이를 생산하는 공정 특성상 현장에는 크레인 30대, 압력용기 20대, 집진설비 55대 등 수많은 대형 유해위험기계구기가 설치되어 있어 협착, 말립 등의 재해 위험이 많다.

2. 위험성 현장 공정은 몇 백톤의 대형 롤 회전체가 연결되어 종이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롤에 종이나 이물질이 끼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종이나 이물질 제거는 에어로 제거하는데, 제거 도중에 착용하고 있는 면장갑, 작업복 등이 말려 협착재해 위험이 크며, 종이가 화기에 약한 관계로 화재의 위험도 크다는 특징이 있다.

3. 안전관리 현황

가. 자체검사

모든 기계에 대한 자체검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점검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기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3일 이상 차출함에 따른 업무 차질이 발생하였고, 특히 검사를 위해 대형크레인을 오르내림에 따른 안전상에 문제도 발생하였다.

검사 내용에 있어서도, 늘 점검하는 사람과 기계구기가 동일하다 보니 검사의 한정성, 습관성, 제한성, 형식성으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위험기계구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받고 있다.

나. 자율적 안전점검

매월 1일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날이다. 올해로 6년을 맞이한 기계구기에 대한 자율적 안전점검은 해당 기기의 기계분야는 공무과, 전기분야는 원동과에서 점검을 하는데 이때 발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자를 만들었고, 이를 어디인가 기록하여 전하려는 영원성과 싸워왔다. 최근에는 기록매체가 첨단화되고, 다양화되었지만, 종이는 우리 삶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매체이다. 1957년부터 장인의 정신으로 종이를 생산해온 흥원제지주식회사를 찾았다. 백상지, 아트지 등 연간 초지 30만톤, 도공 15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평택공장에는 수 많은 유해위험기계기구가 현장에 설치되어 있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 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장속으로 들어가 보자.

생한 문제점은 자체보수 또는 외부용역에 의해 조치된다. 이러한 일련 상황을 총무과에서 확인한다.

다. 안전교육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아침, 전년도 사고를 분석한 자료를 과장급 이상 임직원과 공유하는 자리에서부터 한해의 안전교육은 시작된다.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사항도 이때 발표된다.

월례안전교육은 조장급 이상에게 실시되며, 3교대의 작업 특성상 3주에 걸쳐 2시간씩 월별 테마에 의해 안전교육이 진행된다.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작업전 5분안전미팅 시간에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어, 사실상 전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총무부에서 3주 1회의 안전교육이 실시되는데, 이때 참석하지 않는 근로자 및 담당 부서장은 강춘희 공장장으로 부터 문책을 받는다.

라. 계몽활동


이곳의 안전표지판의 문구는 직설적이다. 근로자에게 짧은 시간에 시야를 끌기 위함이며, 오랜시간동안 근로자의 뇌리에 남아 있게 함이다.

환경이 변하고, 근로자의 기본 마인드가 변함에 따라 예전의 안전표지판도 새로운 시설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면 모든 안전표지판의 교체가 완료된다.

4. 맺음말 이런 노력에서인지 유해위험기계에서의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무재해 1배수도 곧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모든 기계설비에 있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할 만큼 안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강희



춘 공장장의 강인함 뒤에는 재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직 그날까지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인간적임과 신뢰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영주 밑에 올해로 안전경력 10년의 꿈을 펼치고 있는 홍장표 주임은 오늘도 무한의 시간 속에서 무재해 흥원제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종덕 기자)